

위법망구 정신에는 남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울진 불영사 주지 일운 스님 (조계종 종회의원)



일운 스님은 ... 1953년 출생. 묘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1969년 운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 1976년 법주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1976년 봉영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1982년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한 스님은 이후 대안에서 불교를 공부했다. 스님은 1991년 6월 대안 불학연구소에서 불교학과 석사과정 졸업하고 1992년 5월 묘암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았다. 1994년부터 불영사 주지를 맡고 있으며 1997년부터 비구니 선원회 부회장, 2006년부터 14·15대 종회의원을 맡고 있다.

경남 울진의 대표절경 하연 불영사계곡을 빼놓을 수 없다. 산세가 인도 천축산과 비슷하다는 천축산 자락의 웅장한 바위와 그 사이로 흐르는 푸른 물의 조화는 천혜의 절경으로 불린다.

그 계곡길을 굽이굽이 따라가면 고즈넉한 불영사의 풍경이 길손을 반갑게 맞이한다. 불영사는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 말사로 진덕여왕 5년(651년) 의상(義相) 대사가 창건했다. 금강송 군락지의 숲길을 뒤로 그림 같은 연못 속엔 천축산과 전각들의 그림자가 비친다. 불영사의 연못은 창건 당시 아홉 마리 용을 주문으로 쫓아냈다는 설화가 있을 만큼 깊고 넓다. 이 연못에 서쪽의 부처 모습을 한 바위가 항상 비쳐 불영사(佛影寺)로 불리는 것이다. 산으로 둘러싸인 자기만의 풍자에 오밀조밀 많은 전각이 자리한 모습은 한 폭의 그림이다.

하지만 불영사가 현재의 이런 모습을 갖게 된 것이 불과 10여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이는 몇이나 될까?

불영사 입구에서부터 펼쳐진 15km에 달하는 계곡은 맑고 장엄한 명승지이다. 1985년 계곡에 난 36번 국도가 포장되면서 불영사 계곡은 휴양지로 각광 받았다. 기암절벽의 천축산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경관에 한여름 아열대는 수천 명에 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시 세남 39세인 젊은 주지 스님이 부임하며 상황이 달라졌다. 절 입구에 일주문을 세우고 일주문 내 아열장을 철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밭을 간다'는 뜻을 지닌, 심전(心田) 일운(一耘) 스님이다.

스님은 수행과 청정가풍을 통해 신라고찰인 불영사를 정법수행으로 새롭게 바꾸길 원했다. 스님은 계곡의 아열장을 모두 철거하고 경내를 깨끗하게 정비해 절 면모를 일신했다.

무엇보다 자신이 대중살이에 철저했다. 새벽 3시부터 밤 10시까지 대중들과 일체를 함께 했다. 매일 500배를 하고 오후에는 불식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삶을 통해 보이고자 했다. 현재도 스님은 출타 중일 때나 절에서 소임을 볼 때나 항상 스님들과 함께 대중생활을 한다.

스님의 철저한 대중살이는 불영사 공양간을 보면 딱 드러난다. 불영사는 사찰의 모든 살림을 비구니 스님들이 담당한다. 스님들이 직접 채소를 다듬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한다. 흔히 말하는 공양주 보살이 없다.

스님의 솔선하는 모습에 하나둘씩 먼 곳에서 온 여성들이 발심 출가했다. 이탈리아에서 생물 교사를 하다 불영사에서 한 달을 지낸 뒤 출가한 여승 스님을 비롯해 대만 여성 6명, 러시아 여성 1명이 불영사에서 출가했다. 스스로에게 만큼이나 제자들에게 엄격한 일운 스님 밑에서 출가한 비구니는 53여 명에 달한다.

불영사를 우연히 찾은 이들은 불영사의 이런 모습을 보고 불신양면의 후원을 자청하고 나섰다. 이는 비구니선원으로 유명한 천축선원 중건의 원동력으로 이어졌다.

1978년 천축선원으로 출범한 불영사 비구니 선원은 1996년 일운 스님이 대웅전 동편에 54평 규모의

선원과 30여평의 지대방을 신축하며 총리에 버금가는 수행·참선 도량으로 거듭났다.

불영사 중흥에 앞장 서 온 일운 스님은 조계종 제 14대, 제15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이기도 하다. 선원분야 직능대표인 스님은 비구니계를 넘어 사부대중들에게 수행가풍을 널리 알렸다. 육복연 젠더연구소장과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등 여성불자들이 11월 20일 불영사를 찾아 일운 스님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정리=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사진=박재원 기자 wanihollo@hanmail.net

- 절 입구를 알리는 일주문이 세워지고 아열장이 철거되면서 1400년 고찰의 면모를 지니게 됐습니다. 일주문으로 시작된 중창불사는 현재 천축선원을 비롯해 극락전·무위당·청운당 등 수채의 건물로 이어졌는데 그 동안 불사의 원동력,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추석을 앞둔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계곡에 아열객이 남기고 간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태풍으로 인한 다리도 반쯤 꺼내려가 있었습니다. 일단 일주문을 세우고, 경계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불영사 일궈

수행가풍 세우는 것이 곧 포교

불영사선 50여 상좌 직접 절 소임 봐

포단에서 살고 포단에서 죽자 실천

두기 위해 울진군에 아열장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일주문을 세울 때의 일입니다. 당시 마을 주민들은 일주문을 세우면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울진군에서도 불영사 주변에 아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겨울에 천막을 치고 일주문 세울 준비를 하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설득하는 한편 주변 정화에 나섰습니다. 일주문이 세워지면서 불영사의 면모가 일신하기 시작되면서 천축선원을 짓고 불사를 하나씩 해나가다보니 25여 동에 이르러 됐습니다.

-이후 지역민과 사찰이 함께하는 행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찰음식축제와 울진군민을 위한 산사음 악회, 초·중·고 어린이백일장 등인데 이번 5월에는 열불만일결사를 시작했습니다.

불교의 핵심은 자기완성 즉 자아완성 자기를 알기 위한 수행입니다. 마음을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 하고, 마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을 범부 중생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은 불성이 있어 절대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경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불교가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줘야 할까요. 어떤 시대여야지 세계가 평화롭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는 밥을 먹으면서도 망상을 하기 때문에 밥을 먹는 지 모르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진정한 인생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자본주의 물질주의 세상에서 재물, 명예 등 다른 것의 획득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만 합니다. 그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며 경쟁을 위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자기로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교는 다섯 가지 계율을 통해 생명을 존중하고 내 생명과 남의 생명을 중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모르고 짓는 죄가 너무나 큼니다.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내 곳간의 쌀은 다 씹어 가는데 남의 곳간 쌀만 보는 상황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자신을 돌아보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만일결사를 하게 된 이유는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 다 부처가 될 수 있고, 불성(佛性)을 지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불성인 마음은 중생의 본래 청정한 마음이며, 마음을 매순간 연불에 집중하여 우리의 여러석움에서 비롯된 탁한 마음을 정화하여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탈하고 매순간 영원한 자유인(부처님)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사는 지구촌이 어떠한 고통도 없는 행복하고 깨끗한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나 본질을 위해 사는 삶을 갖자는 것입니다. 내 주변부터 정화하고 그와 함께 내 가족부터 불교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 한 건지 얘기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오후 불식과 매일 500배를 심어 년 간 해오고 있는 것인가요?

항상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번뇌 망상을 제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번뇌 망상이 일어날 때마다 화두에 집중해야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계속 집중해서 하려면 끊임없는 자비심(보리심을 바탕으로 한 자비로운 마음)을 내야 합니다. 그 자비심의 에너지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 語默動靜)에 늘 자신을 살피는 철저한 자기 수행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본래 마음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접하고 3일 만에 출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스님은 불영사 묘암 스님의 전강제 지입니다. 은사 스님으로부터 감명 받은 것이 있다면?

은사 스님은 평생을 후학 양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항상 하심을 강조하시고 스님의 생활 자체가 법승에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스님은 상좌만 50여명이 넘습니다. 법랍과 세랍에 비해 상좌수가 많은데 특히 상좌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창사 18주년 기념

부처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성지 순례

미얀마

(대한항공 직항) 1월 15일 출발, 1월 19일 출발. 양곤 1 바간 1 해호 6일 199만원 추가경비 없음

- ◇ 미얀마 성지순례 출발확정 : 1월 26일, 2월 7일, 2월 24일
- ◇ 미얀마 완전정복 양곤 1 바간 1 만달레이 1 해호 7일 1,840,000원
- 특급호텔 : 양곤-세도나, 바간-뜨레저, 만달레이-세도나, 해호-뜨레저
- 전일정 : 특급호텔 및 아름다운 리조트, 가이드+기사탑 포함, 마차투어, 유류세(260,000원)불포함

미얀마 성지순례 3월 출발

- ◇ 양곤 1 바간 1 해호 6일 : 1,650,000원 (유류세 별도)
- ◇ 골프투어 5일 (요금문의)

인도

- ◇ 완벽 8대성지 아그라 타지마할 9일 2,540,000원
- ◇ 완벽 8대성지 아그라 타지마할 10일 2,590,000원

전일정 : 5성급호텔, 일급호텔, 한식요리사, 고급버스, 가이드+기사탑 포함 등등, 추가경비 없음.

스리랑카 특급일정

전통불교성지순례 6일 담블라 | 시기리야 | 아누라다푸라 | 캔디 | 풀른나루와 | 콜롬보

- 「땃! 특가」 라오스 문화탐방 성지 순례 1,399,000원 부터
- 베트남 "하롱베이" 캄보디아 "씨엘립 앙코르윗" 1,049,000원 부터
- 하와이 5~6일 (요금문의)
- 장사 | 장가계 | 원가계 | 천문산 5~6일 (요금문의)

미얀마 종교성 관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마하연투어

(주)에스큐

☎ 02)365-7747

탄허대종사 대방광불화엄경 현토 (80권본)

특별판매

현불삼 독점판매 기념 할인 이벤트 「200질 환정판」 30만원 → 25만원 (선착순 마감)



세트 전 5권을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지 2·7일이 되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울진 화엄경에는 6가지 본이 있으며, 3가지 번역이 있다.

화엄경은 당나라 중종 임금의 사성 12년부터 16년까지, 즉 서기 695년부터 366년까지 5년 동안 실차난타가 번역한 것으로 7차에서 90회에 말씀하신 것을 모아 39품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 때 번역하여 당본 '화엄경'이라고 하고, 80권으로 되었다고 해서 '80화엄'이라고도 한다.

교림출판사

전 5권 전질 | 금장 | 최고급양장케이스 | 라이온코트지 마색 80그램 | 울케이스 | 전질2도 인쇄

현대불교 현 불 삼 02)2004-8215

비구니 의원 수 증대는 시대 요청



후학들에게는 항상 포단(참선할때 앉는 좌복) 위에서 모든 것(번뇌망상과 생사문제)을 해결하고자 강조합니다. 승가는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 성직자로 품격을 갖춰야 하며, 안으로부터 철저한 위법망구의 정신을 가져야 하고 포살(布薩)과 자자(自恣)를 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 포교 현장에 비구니 많아
시대흐름 반영 위해 불교 변화야
그 첫번째는 비구니차 인식 변화
비구니 종회의원 증대는 시발점

국민들에게 불교는 권위적·보수적 종교라는 설문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비구니스님들이 비구 스님들보다 소극적으로 활동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994년 종단 개혁 당시 확보한 것입니다. 종단이 출범한지 꽤 됐으며 그동안 정화를 통해 많은 안정을 이뤘습니다. 정화 당시 비구 스님들이 큰 역할을 하셨지만 비구니 스님들도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지역 곳곳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등한시하면 부처님 제자로서의 도리가 아닙니다. 급격한 사회변화의 한가운데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려면 스님들이 더욱 분발해야 합니다. 청렴결백, 근면성실, 꼼꼼한 절살림 운영 등 사찰 운영에서 보여주고 있는 비구니 스님의 능력을 종단 운영에 활용해야 하며 비구니스님들도 사회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불교발전의 필수 조건입니다.

현재 종회의원은 직능대표를 제외하고 각 지역 교구에서 비구 스님들이 2명씩 뽑히고 있습니다. 이에 비구니 스님 1명씩도 대표로 뽑아 각 교구에서 3명씩 늘리는 안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구·비구니를 떠나 이 시대가 요구하는 불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화두가 될 것입니다. 이 화두를 타파하는 과정에서 비구 비구니의 화합은 자연스럽게 이뤄지리라 봅니다.

현재 출가자의 수는 비구와 비구니 수가 비등합니다. 또 시대가 변해 포교일선 등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 발전을 위해, 현실에 맞는 종단 운영을 위해서는 비구니 종회의원 증대는 꼭 필요합니다.

종단 내부 분규나 정치권의 압력 등 한국불교의 위기 상황마다 비구니스님들이 불발수호를 위해 역할을 해왔지만 오히려 권리가 제약된 면이 있습니다. 그 개선방안으로 조계종 중앙종회 종회의원 의석 증대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구니 종회의원 회장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난 7월 21일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이 종현종법 제개정 특별위원회에 비구니 종회의원 의석수 개선 방안을 제안했지만 종회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현재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이 10명인데 이는

7월 경 종현종법개정특위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골자는 비구 비구니를 떠나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는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종회에서 거론이 되지 못하고 의견에 그쳤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의석수 개선방안은 기존 비구 스님의 자리를 비구니 스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본사 말사 중에서도 비구니 말사들이 많습니다. 지역의 여러 애로점을 반영하기 위해 비구니 종회의원 수를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불자여성들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좋은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운 마음 즉 자비심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모든 사람과 사랑만상(森羅萬象)의 우주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와 나는 동일체(同一體)이기 때문입니다.

■ 불명사는?

불명사는 조선 태조 6년(1397년) 화재로 소실된 것을 중건했으나 다시 소실돼 연산군 6년(1500년) 양성 법사(養性法師)가 중건했다. 다시 임진왜란 때 모두 소실됐으나 응진전은 화마를 피했다. 그 이후 광해군 1년(1609년) 진성법사의 중건을 시작으로 여러 스님들의 손으로 중수됐다. 현재 당우는 대웅보전, 명부전, 극락전, 응진전, 의상전, 칠성각, 산신각, 천축선원, 황화실, 설법전, 응향각, 설선당, 청운당, 청풍당, 회운당, 향운당, 법운당, 단하당, 청담당, 범종루 등이 있고, 창건 당시 유적인 무영탑(無影塔)과 돌거북 등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가 있다.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신학과 교수

검색이 됩니까

쌍둥이도 세대를 느낀다는 말이 있다. 세상이 얼마나 급속히 변하는가를 실감하는 말이다. 어느 시대이건 젊은이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것이 아닐까 한다.

언젠가 과제물을 흑판에 열심히 적고 있는데 유독 한 학생이 눈에 띄었다. 필기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왜 적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적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차! 시대에 뒤떨어진 질문이구나!' 바로 알아차리게 되었다.

조선 초기에 명재상 허조(許耆)가 있다. 허조는 세종시대의 재상으로 날마다 새벽마다 울면서 세수하고 의관을 갖추고 앉아 책을 읽었으며 하루 종일 계엄을 피우지 않았다. 또한 나랏일을 의논할 적에는 자기의 신념을 지켜 남들의 눈치를 보며 쫓대 없이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았다. 부모님 기일을 때는 반드시 어머니가 손수 지은 죽을 때 있던 푸른 빛 단령(團領)을 입고 애도의 눈물을 흘렸다. 단령이란 벼슬아치가 평소에 입는 잡무복으로 것을 등급에 맞들었다.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마음 깊이 사무쳤던 것이다.

검색이란 '책이나 컴퓨터에서 자료를 찾아내는 일'이라고 사전에는 설명되어 있다. 그런데 다수의 경우 책 보다는 컴퓨터에 의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느 날 밤이었다. 밤늦도록 책을 읽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 물건을 훔기고 있었다. 허조는 그 광경을 보고 놀라기는커녕 장승 마냥 우두커니 보고만 있었다. 도둑이 나간 뒤에야 집안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수련거리기 시작했다.

컴퓨터에서의 검색은 몇 초 내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 연이 같이 구름 같이 사라지고 만다. 문제는 몇 초 동안에 내 머리에 입력이 되느냐 하는데 있다. 머리에 저장하려면 저마다 기억력의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십 번씩, 아니 어느 경우에는 일생동안을 익혀도 잘 안기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책을 사서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서관의 책들은 만인이 이용함으로 깨끗하게 보아야만 하고 오직 자기 책이 있어야 나름대로 독서법에 따라 이런저런 옆집이를 하며 공부하다 보면 다음에 볼 때는 더욱 쉽게 익힐 수 있다고 지도하고 있다.

그리움은 밀물·썰물보다 빠르게 물러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양분 되기도 해 인간세상 만나면 헤어짐 막지 못하니 태생이 유한한 인간은 그리움 안고 살아 검색되지 않는 것들을 소중히 살펴야

요사이 검색이란 말이 주변에 만연해 있다. 부모보다 앞서고, 친구, 연인, 노을 보다 앞서는 말이 되었다. 그렇게 흔한 검색이 부모님의 사랑을 대신 할 길이 없다. 친구의 진한 우정을 대신할 수 없으며, 저녁노을의 벽간 환희를 대신할 방도가 없다. 왜 그럴까. 검색에는 숨결이 없기 때문이다. 검색은 감정이 없기 때문이다. 감동은 맥박의 고동소리에 감지할 수 있다. 연인이 만나 풍당거리는 고동소리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미 연인 사이가 아니다. 하나의 비즈니스의 대상일 뿐이다.

허조가 집안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보다 더 심한 도둑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느 여가에 바깥 도둑을 격정 하리요". 집안사람들이 머리를 숙였다.

그리움이란 비단 세모에만 느끼는 것은 아니다. 그리움은 밀물 보다 빠르게 물러왔다가 썰물 보다 속히 빠져 나간다. 계절에 무관하게 그리움이 순간순간 밀려오고 가는 것은 단순한 자연의 순환법칙 같은 것이 아니다. 그리움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양분이기도 한다. 그리움이 매몰된 인간 세상을 생각해 보라. 그 세계는 오직 정령의 법칙만이 존재할 것이다. 그 세계야말로 감각자 약자를 포식하는 힘의 논리만이 적용될 것이다.

현대인이 망각하고 사는 것 가운데 하나는 마음의 도둑이다. 각자의 마음에 깊이 파려 잡고 있는 마음의 도둑은 검색이 됩니까. 아마 그에 대한 답은 손사래로 대신할 밖에 뽕뽕한 묘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 모자가 없어 못 잡는 것도 아니고 수사 인력이 모자라지도 아니다. 또한 국제 간에 인터폴(Interpol)이 결성되지 않아서도 아니다. 마음의 도둑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데도 잡지 못하는 데는 인간이 버리지 못하는 욕심 때문이다.

인간 세상에 만나면 헤어진다 원리를 벗어난 길이다. 생명 있는 것들은 소멸한다는 사실 앞에 거역할 자 누가 있겠는가. 그러기에 태생적으로 유한한 인간은 그리움을 안고 사는

어느 날, 몸과 마음이 가뻐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무거운 욕심의 짐을 부러버렸기 때문이다. 이 가벼운 마음을 지속하지 못하고 탐심을 쫓아 가면 욕심이 찌뿌드드하고 마음이 맑지 않다고 주변에 하소연을 하기도 한다.

검색되지 않는 것은 비단 마음과 그리움 뿐 아니라, 뜨거운 감각의 눈물도 검색되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벽조목 (벼락맞은 대추나무)

귀의 삼보하루고 벽조목은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신비의 마력을 지닌 위력물로 각종 부적 호신구를 만들어 인간사에서 모든 팔난을 막는 신비로운 것으로 널리 상용하여 왔습니다.

이 벽조목으로 현대 감각에 맞는 것으로 단주, 염주, 인장 목걸이 등을 만들어서 널리 공급하고자 하오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문의 02)743-8234
김정덕 합장

야생보이차와 침향의 명가 錦原堂 다茶보普향香

다보향 침향(선향)

"제향(諸香)의 왕" 침향 - 순수한 천연향이므로 밀폐된 공간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공기를 흡수하여 정화, 향균작용, 해충근절방지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 집중을 필요로 하는 공부방, 서재, 연구실, 사무실.
- 집안의 거실과 침실, 주방.
- 독서실, 요가원, 수련원, 수행과, 기도실.
- 환자들을 위한 병의원, 한의원, 치료원.
- 심신의 안정과 氣의 원활한 순환이 필요할 때.

야생보이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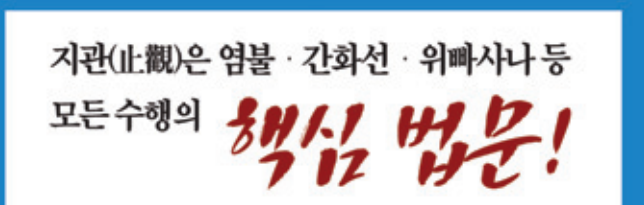
야생보이차는 해발 1,200m 이상 고산지대에서 높이가 2.5m 이상 되는 야생교목에 직접 사람이 올라가 일일이 정성스럽게 잎을 채취하여 만든 아주 귀한 차입니다.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철저한 검사와 정신통관, 검역절차를 거쳐 제품화된 믿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차입니다.



- ◆ 특징 ◆
- 야생보이차는 젊은 여성 - 체중조절과 피부미용.
- 나이든 중년 여성 - 속이 냉하고 손발이 차고 번비가 있을 때 속이 편해지고 손발이 따뜻.
- 직장인 - 잦은 술자리 회식 등의 숙취 해소에 도움.
- 학생 등 - 머리를 맑게 해 줍니다.

판매원 : 마하몰 02732-1520 www.mahamall.co.kr
금원당대법향 070-8758-8847 www.dabohyang.co.kr

지관(止觀)은 염불·간화선·위빠사나 등 모든 수행의 핵심 법문!



법공양시 특별 할인!

지관수행
수습지관좌선법요 (修習止觀坐禪法要) 강의
천태지지의 저 | 송찬우 역해
신국판 | 흑백 | 456쪽 |
2011년 11월 25일 발행
18,500원
■ 전국서점과 인터넷서점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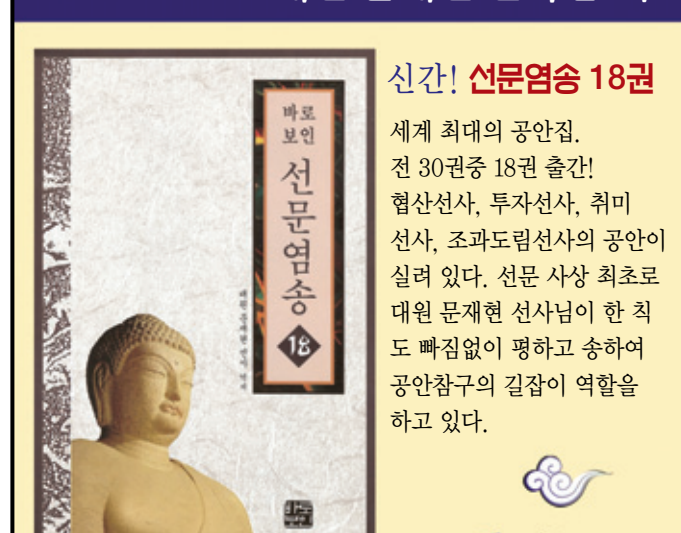
모든 남·북방 수행법문의 이론과 실제 곁들인 수행 지침서
'Jipsamatha'를 통해 선정음,
'관vipassana'을 통해 지혜를 얻는다

(수습지관좌선법요(修習止觀坐禪法要)는 처음 발간한 사람이 수행(修)하고 인도(入)하는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지관법문을 총론적으로 밝힌 책. 천태종을 창종한 천태지지의(538-597) 대사의 지술.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대각백 한학 스님으로부터 교(敎)를, 명예원로의원 성수 스님 문하에서 선(禪)을 들은 동원 송찬우 교수(중영승가 대가 이론과 실제를 곁들여 상세한 해설을 덧붙여 수행 지침서 역할을 하도록 했다.

비움과소통: 02-2632-8738, buddhapia5@daum.net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거사어록

신간! 선문염송 18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중 18권 출간!
협산선사, 투자선사, 취미선사, 조과도림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031-534-3373 www.zenparadise.com